

한·영 산업기술협력포럼 개막식 연설

안녕하십니까? 제5회 한·영 산업기술협력포럼을 축하합니다.

5년 전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방한하신 것을 계기로 이 행사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왕님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의 방문에 맞추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필립 버튼 의장과 임관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생산요소의 대량투입과 같은 전통적인 성장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혁신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하이테크 기술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혁신 개념을 처음 도입한 나라입니다. 20세기 들어서도 지금까지 과학 분야에서만 7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와 같은 산·학·연 클러스터를 전국에 형성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기술혁신체계를 갖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술혁신 능력이 영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혁신주도형 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파급효과가 크고 미래성장을 이끌어갈 핵심기술을 선정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공계와 과학기술인 우대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우수한 인력이 모여 있는 연구소와 대학이 기업과 연계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의 우수한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동북아 R&D 허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하지만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핵심역량을 발전시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국가간 협력으로 상호이익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영국은 기초기술과 하이테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생산기술과 응용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생명공학·나노기술·에너지·환경·우주항공·문화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제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한국 시장은 영국 기업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업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디지털 제품의 시험장으로서 높은 시장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강점을 결합할 경우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그 성과가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영 산업기술협력포럼'은 기술협력과 합작사업, 신기술제품의 교역확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처럼 양국 기업과 국가의 부가가치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창조적인 협력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